

『문장강화』와 식민지의 언어편제

허병식*

- 차 례 -

1. 『문장강화』가 놓인 자리
2. 언문일치라는 이데올로기
3. 제국과 지방, 언문일치와 예술문장
4. 개성의 처소, 주체의 위치
5. 제국적 언어편제와 글쓰기

* 동국대학교 서사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monogata@naver.com

[국문 초록]

이태준의 『문장강화』는 근대적 언문일치에 대한 신념을 글쓰기의 기본요건으로 상정하면서 글쓰기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 주요 요점은 한자어에 대한 제한과 표준어 사용에 대한 강한 요구이다. 문자보다 선행하는 음성의 기원에 민족의 전통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음성 중심주의가 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동반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표준어 사용의 강조는 표준어로 대표되는 순수한 ‘한국어’라는 가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잡종적인 다양성을 탈피하여, 하나의 국민공동체에 대한 귀속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태준은 『문장강화』의 결말에서 현대의 언문일치로 대표되는 문장을 예술문장과 대립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문예가에게 필요한 것이 언문일치를 탈피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제국 일본과 일본어의 바깥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술과 글쓰기의 자족적인 영역 속으로 민족을 분절하는 것이다. 이태준이 언문일치를 졸업하고 예술적 문장에 입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문맥에서 정치의 미학화이다.

『문장강화』가 내세운 개성의 강조는 언문일치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중립적인 지점을 상정함으로써 역사적이고 개인적인 문맥을 소거하고 있다. 『문장강화』가 그러한 중립적이고 탈역사적인 지점에서 요청하고 있는 주체는 고정되고 정태적인 기능주의적 전체성 속에서 그 위치가 미리 정해져 있는 주어이다. 개인이 고정된 결과 개인은 전체성에 의해 미리 정해진 주체위치에 갇히게 된다. 그 주체위치는 식민지의 모국어라는 극히 불안정한 장소 속에 겨우 존재하는, 심미적 글쓰기라는 매우 모호한 지점이다.

주제어 : 이태준, 문장강화, 언문일치, 예술문장, 식민지의 언어편제, 심미적 글쓰기

1. 『문장강화』가 놓인 자리

이태준은 자신이 주재하였던 『문장』지에 ‘올바른 조선어문장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생각을 담아 「문장강화」라는 연재물로 발표하였다. 1940년에 문장사에서 간행된 『문장강화』는 이 연재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장을 첨가하고 새로운 글을 묶어 출판한 것이다. 단행본 『문장강화』는 우리말이 갖는 문학어로서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개발해 내고, 일제하의 식민지 시기에 우리말이 갖는 문화적 중요성을 부각시킨 저술로 평가되고 있다. 『문장강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태준의 소설론이나 문학론과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연구¹⁾나, 『문장강화』에서 문장론의 핵심을 이루는 언문일치의 문제를 분석하는 연구²⁾, 그리고 『문장강화』에 나타난 문체론 연구³⁾, 어휘론 연구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본고는 이태준의 『문장강화』가 그의 식민지 시기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에서 종종 지적되는 바와 같이 식민지적 무의식을 드러내는 텍스트임을 밝히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문장강화』의 해방 전/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텍스트의 근본적인 위상변화를 지적한 이해령의 연구⁵⁾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태준의 『문장강화』는 해방 후 작가에 의한 개

1) 한상규, 『『문장강화』를 통해 본 이태준의 문학관』, 『이태준 문학연구』, 깊은샘, 1993.

천정환, 「이태준의 소설론과 『문장강화』에 대한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6, 1998.

박진숙, 「이태준 문장론의 형성과 근대적 글쓰기의 의미」, 『시학과 언어』 6, 2003.

이익성, 「이태준의 문장론과 소설기법」, 『현대소설연구』 33, 2007.

2) 김윤식, 「문학어와 인공어, 상허의 『문장강화』와 편석촌의 『문장론신강』」, 문학동네, 1998. 여름호.

배개화, 「『문장강화』에 나타난 문장(文章)의식」, 『한국현대문학연구』 16, 2004.

3) 안미영, 「『문장강화』에 나타난 문장론의 배경과 문학적 형성화」, 『작가세계』, 2006. 겨울호.

4) 문혜윤, 「1930년대 어휘의 장과 문학어의 개발-어문운동의 맥락과 『문장강화』의 지향」, 『상허학보』 17, 2006.

5) 이해령, 「이태준 『문장강화』의 해방 전/후」, 『한국소설과 골상학적 타자들』, 소명, 2007 398-429면.

작과정을 통해서 식민지적 무의식을 적극적으로 감추려는 대상이 되었던 작품 중의 하나이다.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해방의 시공간 속에서 서둘러 자신 속에 있던 식민지적 무의식을 억압하거나 거부하기를 원했다면, 그러한 외상(外傷)의 무대를 가장 극적으로 상연한 작가는 역시 이태준이다. 이태준의 ‘해방 전후’가 어떤 방식으로 극적인 자기 부인과 자기창안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몇 편의 연구가 있었다.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이 현실자로서의 이태준과 작가로서의 이태준을 분리하게 만들어서, 창작을 통해 배양해 온 민족 의식과 자기합리화가 현실의 이태준의 치장으로 채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논의⁶⁾나, 해방 직후 『사상의 월야』의 개작 과정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극화에 대한 지적⁷⁾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밝혀내기를 원하는 것은 작가 이태준의 실증적인 면모가 지닌 어떤 그들의 폭로가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되는 식민주의/식민지의 양가적인 욕망의 이해일 것이다.

한편으로 일제말의 언어상황과 글쓰기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1940년대를 전후한 상황에서 ‘조선어’와 ‘조선어 창작’이 놓인 곤경에 주목하고 있다. 황호덕은 현영섭의 조선어해소론과 김사량의 이중언어창작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시기 조선어와 조선문학이 놓인 모종의 불안을 지적한 바 있다.⁸⁾ 또한 김철이 최현배의 「조선민족 경쟁의 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장하듯이, 식민지 언어 내셔널리즘의 실천이 조선어에 특정한 의미나 가치를 제한, 할당함으로써 그 틀을 유지하는 제국의 언어편제 방식을 처음부터 수용함으로써 가능한 것

6) 사에구사 도시카쓰, 「해방 후의 이태준」, 『사에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 심원섭 역, 베틀북, 2009. 415-450면.

7) 和田とも美, 「李泰俊の文學の底流にあるもの」, 朝鮮學報, 1996.1. 허병식, 「이태준과 교양의 형성」,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227-250면.

8) 황호덕, 「國語와 朝鮮語 사이, 內鮮語의 존재론-일제말의 언어정치학」, 현영섭과 김사량의 경우, 『대동문화연구』 제58집, 2008.

이었고, 그리하여 처음부터 제국에 의해 주어진 범주에 안에서 민족적인 것을 특수한 영역으로 분절하는 것이라면,⁹⁾ 이태준의 『문장강화』에 나타난 글쓰기의 문제 또한 이러한 제국/식민지의 언어정치학의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이치라 할 것이다. 이렇듯 조선어의 언어정치학이 당대 제국주의 질서의 급격한 변모 과정에서 특수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은폐와 배제 아래 쓰여진 조선어 글쓰기의 독본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는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식민지의 언어상황을 둘러싼 무의식이 『문장강화』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되어 있는가를 좀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장강화』가 이태준의 다른 텍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양가적인 식민의 욕망과 전도된 식민지적 무의식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2. ‘언문일치’라는 이데올로기

『문장강화』의 식민과 탈식민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문장강화』의 글쓰기에 나타난 제국 일본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박진숙은 이태준의 『문장강화』가 메이지 시대의 많은 문장독본들로부터 언문일치와 ‘강화’라고 하는 계몽의 의도를 차용하였고, 개성적인 글쓰기를 강조한 점에서 작가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¹⁰⁾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적하지는 않았다. 미리 밝히자면 『문장강화』에

9) 김철, 「갱생의 도 혹은 미로」, 『민족문학사연구』 28, 2005.

10) 박진숙, 「이태준 문학연구: 텍스트와 내포독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원, 2003. 148면.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문장독본」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태준이 「문장독본」이 제기한 근대적 언문일치의 이데올로기 비판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의도적으로 그 문제를 비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식민지 조선의 자기인식에도 결정적인 지점이라 할 수 있기에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문장강화』에 나타나는 「문장독본」의 영향만을 지적하고 그 차이를 적시하지 않은 것은 여러모로 탈식민의 과제에 미달하는 것이다.

이혜령은 『문장강화』가 일본의 독본류와는 달리 그 체계성과 완결성이 자족적인 것이었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제국의 언어 편제 안에서 조선의 문학독본이나 강화는 어디까지나 지방적인 것, 문학과 생활의 범주 안으로 분절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¹¹⁾ 그 논의는 해방 후 국가라는 초월적 심급 아래서 자신을 재정의하고 재구성한 『문장강화』의 분석으로 나아가지만, 식민지 시기에 분절된 지방적인 것 속에 스스로를 정위한 경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니자키 준이치로가 1933년에 발표한 「문장독본」에는 이태준이 영향받았을 법한 대목들이 등장한다. 이를테면, 『문장강화』의 제2장 ‘문장과 언어의 제문제’에서 이태준은 문장을 쓰는데에 유일어를 찾아야 할 필요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唯一語를 찾을 것 “한 가지 생각을 表現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말밖에는 없다”한 플로벨의 말은 너무나 有名하거니와 그에게서 배운 모파상도 “우리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表現하는 데는 한 말밖에 없다. 「……」” 하였다. 名詞든 動詞든

11) 이혜령, 앞의 글, 415면.

形容詞든, 오직 한 가지 말, 唯一한 말, 다시 없는 말, 그 말은 그 뜻에 가장 適合한 말을 가리킴이다. 가령, 비가 온다는 뜻의 동사에도

비가 온다.

비가 뿌린다.

비가 내린다.

비가 쏟아진다.

비가 퍼붓는다.

가 모두 程度가 다른 것은 두말할 必要가 없거니와¹²⁾

위의 인용에서 보이는 ‘유일어’에 대한 생각은 이태준의 『문장강화』에서 제기하는 개성적 글쓰기, 즉 ‘언어에 대한 인식과 세련의 강조’로 나타나는 글쓰기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는 이태준의 글쓰기에 대한 독창적인 관점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시에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던 문장론의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문장독본」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등장한다.

가령 여러분이 ‘산보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려고 할 때에, 단지 ‘산보했다’고 써버려도 이력저력 해결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쓰기 전에 ‘산보했다’라는 말의 동의어를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12) 이태준, 『문장강화』, 문장사, 1940, 81-82면. 앞으로 이 책에서의 인용은 쪽수만 명기함.

산보한다.(散歩する)

산책한다.(散策する)

만보한다.(漫歩する)

한가로이 거닌다.(そぞろ歩きする)

지팡이를 짚고 걷다.(杖を曳く)

어슬렁거리다.(ぶらつく)

프롬나드(산책)하다.(プロムナードする)

등의 말을 생각해낼 수 있다.¹³⁾

다니자키 준이치로 또한 위의 대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문장을 쓰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정확한 어휘를 찾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마침 프랑스의 어떤 문호가 말한 것에, ‘하나의 경우에 대해 가장 적합한 언어는 단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있는데, 이 ‘가장 적합한 언어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꼼꼼히 음미하여서, 여러 개의 다른 언어가 있는 경우에 아무리 해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된다면, 사고방식이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⁴⁾라고 말하며, 독자들에게 단어의 엄밀한 적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대목은 『문장강화』가 「문장독본」으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당대에 널리 알려져 있던 글쓰기 이론의 전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글쓰기의 기술적인 요소에 대한 태도를 벗어나서 보다 본질적인 측면, 가령 근대적 언문일치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다면, 『문장강화』와 「문장독법」은 매우 이질적인 텍스

13) 谷崎潤一郎, 「文章讀本」, 『谷崎潤一郎全集』, 中央公論社, 1983, 152-153면.

14) 위의 글, 154면.

트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태준은 『문장강화』의 제1장 「문장작법의 새 의의」에서 ‘문장이란 어떤 것이든 언어의 기록’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말하듯 쓰면 된다. 글이란 文字로 지꺼리는 말이다.”(3면)라고 근대적 언문일치를 인식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글짓기가 아니라 말짓기라는데 더욱 鮮명한 認識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글이 아니라 말이다.”(15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새로운 문장작법의 제1과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매우 소박한 언문일치에 대한 강조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발화가 문어보다 직접적으로 자기의 사고를 반영해 낸다는, 언문일치의 기반과 추진력이 되었던 음성중심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⁵⁾ 그러나 ‘말하듯이 쓴다’라는 언문일치의 이념에 기본적으로 충실한 이태준의 문장론은 다니자키가 제기한 언문일치의 모순에 대한 인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니자키 준이치로는 「문장작법」에서 근대적 언문일치의 이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널리 쓰이고 있는 문체를 구어체라거나 언문일치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입으로 말하는 그대로를 문자로 쓰는 것은 아니다. 문장체에 비한다면, 물론 대단히 구어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의 구어와의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결국 일종의 문장체라고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¹⁶⁾

다니자키는 근대적 언문일치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바를 그대

15) 스즈키 토미, 『이야기된 자기』, 한일문학연구회 편, 생각의 나무, 2004, 288-289면.

16) 谷崎潤一郎, 187면.

로 쓰는 것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문장은 구어체가 아니라 일종의 문장체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니자키의 이 언문일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문장독본」의 문장론 중 일본어의 표현가능성에 대한 모색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다니자키의 언문일치 비판은 근대적 음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음성중심주의의 요점은 일방적인 음성의 강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글쓰기와 음성이 변별가능한 것이냐 하는 전제에 있다. 따라서 음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구어를 글쓰기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원초적 글쓰기로 생각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¹⁷⁾ 스즈키 토미에 따르면, 다니자키가 표준화된 언문일치를 비판했던 것은, 그것이 중립적임을 가장하면서 화자나 청자의 역사적, 사회적, 개인적, 대인적 문맥을 소거하려 했기 때문이다. 표준적인 언문일치체가 그 이데올로기적 기원을 은폐하고 중립을 가장한다고 비판하면서, 다니자키는 현실 세계와 주체의 사회적 견해 쌍방을 조건짓는 역사적·사회적·개인적 문맥에 근거해 표현 행위를 수행하도록 글쓰는 이들에게 호소했던 것이다.¹⁸⁾

여기서 일본 메이지기의 언문일치가 일본이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던 시기에, 서구 열강에 맞서 ‘열국’의 대열에 동참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제출되었다는 견해¹⁹⁾를 떠올리는 것은 중요하다. 일본어를 한자어와 한문의 지배로부터 탈각시켜, 속어의 문맥으로 쓰인 문장을 한문의 문장과 동등한 지위까지 끌어올리고, 그것을 서구 근대의 제국의 언어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국가’를 표상하는 ‘국어’로 만

17) 사카이 나오키, 『사산되는 일본어.일본인』, 이득재 역, 문학과학사, 2003, 206-207면.

18) 스즈키 토미, 앞의 책, 293-299면.

19) 언문일치와 제국주의의 연관에 대해서는, 이연숙, 『국어라는 사상』, 고영진·임경화 역, 소명, 2006, 97-102면. 참조.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일본의 국어학자 우에다 카즈토시는, 또한 ‘국어’라는 이념 속에 언문일치와 표준어의 제정을 원리적으로 통합시킨 장본인이었다.²⁰⁾

이태준의 『문장강화』가 그 근대적 언문일치에 대한 신념을 글쓰기의 기본요건으로 상정하면서 전개하고 있는 글쓰기론의 주요 요점은 한자어에 대한 제한과 표준어 사용에 대한 강한 요구로 정리할 수 있다. 문자보다 선행하는 음성의 기원에 민족의 전통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음성중심주의가 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동반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물론 이태준이 한자의 사용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만은 아니어서, 묘사가 필요하지 않은 논설이나 교양인의 사고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사용이 유익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지극히 제한적인 용도에 불과하다. 그는 무엇보다도 한자를 사용하는 문장은 구체력이 적고 생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판단의 근거는 역시 음성에 특권을 상정하는 관점이다.

‘푸른 하늘’하면 ‘푸른’은 푸르다는 뜻, ‘하늘’은 하늘이라는 뜻 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 홑 그대로가 뜻이요 뜻 그대로가 홑이다.

‘靑’이나 ‘天’은 漢字다. ‘靑天’이라 하면 漢字語다. ‘靑天’이란 홑이 곧 뜻은 아니다. ‘靑天’이란 홑의 뜻은 푸른 하늘이다. 홑은 ‘靑天’, 뜻은 ‘푸른 하늘’ 이렇게 홑과 뜻이 따로 있다.

소리가 곧 뜻인, ‘푸른 하늘’의 文章은 읽혀지는 소리가 곧 뜻인, 聲音一元的인 文章이다.

소리와 뜻을 따로 가진 漢字語로 된 文章은 읽혀지는 소리가 곧 뜻이 아닌, 聲音二元的인 文章이다. (68면)

20) 위의 책, 169-182면.

위의 인용에 이어서 이태준은 염상섭의 소설 「전화」와 「제야」에서 각각 한 대목씩을 인용하면서, 속어로 이루어진 「전화」의 문장은 “소리가 모두 그대로들어어서, 새겨야 할 말이나 구절이 없다. 生活語 그대로기 때문에 現實光景이 露骨的으로 드러난다.”라고 평가한 반면, 한자어가 많이 쓰여진 「제야」의 문장은 “句節마다 소리 이외에, 單 觀念이 드러난다.”라고 평가하면서, “描寫 本位라야 할 데서는 아무래도 漢字語는 具體力이 적다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문장강화』의 언문일치가 동반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맥락은 표준어 사용의 강조이다. 이태준은 서울이 문화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중앙지대라는 점,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서울이니까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데도 서울이고, 다른 어느 곳보다 세련되었다는 점, 제반 문물의 집산지이기 때문에 어휘가 풍부하다는 점, 유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에 품위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아야 할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어에 대한 강조는 어찌보면 문장론에서 언급되어야 할 자연스러운 강조라고 보이지만, 당대의 식민지 조선에 만연한 식민주의와 제국의 일본어의 편제 안에서 자족적인 방식으로 글쓰기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표준어로 대표되는 순수한 ‘한국어’라는 가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잡종적인 다양성을 탈피하고 다수성을 배제시키면서 구상되고, 하나의 국민공동체에 대한 귀속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다양한 방언의 형태로 존재하는 차이를 말소하고 보편으로서의 표준어를 상정하는 것과 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통해 순수한 국어의 이상을 창출하는 것은 언문일치의 근본적인 이념에 속한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 『문장강화』의 언문일치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3. 제국과 지방, 언문일치와 예술문장

『문장강화』의 마지막 장인 ‘문장의 고전과 현대’에서 이태준은 마치 언문일치 문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강조를 잊은 듯이, 언어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940년 3월 『문장』 제 2권 제 3호에 「문장의 고전, 현대, 언문일치」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던 이 글에서 이태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言文一致文章은 民衆의 文章이다. 個人的 文章, 卽 스타일은 아니다. 個性의 文章일 수는 없다. 言文一致 그대로는 이앞으로는 藝術家의 文章이기 어려울 것이다.

「……」

말을 文字로 記錄한 것이 文章이라 말한 적이 있다. 물론 文章이다. 言文一致의 文章이다.

그러나 말을 그대로 文字로 記錄한 것이 文章일 수 없다. 이것도 물론이다. 民衆에 있어선 文章이나 文藝에 있어선 文章일 수 없단 말이 「현대」에선 成立된다. (326-327면)

이태준에 따르면 언문일치 문장이란 ‘실용’이고 그 용도는 ‘기록’뿐이다. 예술가의 문장은 ‘생활하는 기구’가 아니라 ‘창조하는 도구’이다. 언문일치 문장이란 근대문학의 선구자들이 고심 끝에 완성해 놓은 현대의 문장이긴 하지만, ‘현대성’을 지닌 현대문장은 아니다. 그러므로 『문장강화』의 마지막 대목을 이태준은 이렇게 장식하면서 끝내고 있다. “문예가는 먼저 언문일치 문장에 입학은 해야 한다. 그리고 되도록 빨리 언문일치 문장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야 할 것이다.”(328면) 여기서 그는 현대의 언문일치로 대표되는 문장을 예술문장과 대립되

는 것으로 상정하고 문예가에게 필요한 것이 언문일치를 탈피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적어도 문예에 있어서라면 “문장은 문장인 所以가 따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장이기 때문에 맛있는, 아름다운, 매력 있는, 무슨 요소가 있”는 문장이 현대문장의 이상이다. 이러한 언문일치 문장과 예술문장, 혹은 개성적 문장의 대립은 이태준이 『문장강화』의 마지막 장에 극적으로 제시한, 근대의 언문일치 문장을 넘어서는 자신만의 예술적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서영채는 이 대목을 지적하며 이태준의 이러한 논리가 “문학 언어를 의미론과 화용론의 공간으로, 즉 언어와 의미와 주체가 서로 교섭함으로써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공간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²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언어가 더 이상 투명한 매체이기를 그치는 장면을 이태준의 견해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장강화』에서 다소 극적으로 수행되는 언문일치에 대한 이러한 시각의 전도는 근대적 언문일치에 대한 부족한 이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이태준은

여기에 文章의 「現代」가 誕生되는 것이다. 言文一致文章의 完成者 春園으로도 言文一致의 倦怠를 느끼는 지 오래지 않나 생각한다. 이 倦怠文章에서 解脫하려는 努力, 李箱 같은 이는 感覺 쪽으로, 鄭芝溶 같은 이는 內簡體에의 鄉愁를 못 이겨 新古典的으로, 朴泰遠 같은 이는 語套를 달리해, 李孝石, 金起林 같은 이는 모던이즘 쪽으로 가장 뚜렷하게 자기 文章들을 開拓하고 있는 것이다. (326면)

21) 서영채, 「한글세대의 문학 언어의 특징」, 임형택 외 편,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626면.

라고 지적하며 언급된 작가들이 보여준 문체에 대한 탐색을 언문일치의 이념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이는 언문일치 문장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장의 대두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대적 언문일치 개념의 완성태로 보는 것이 옳다. 마에다 아이는 일본 언문일치체의 역사적 전개를 개괄하면서, “언문일치체의 문장이 ‘구어를 이용하여 쓴다’ 혹은 ‘구어체 그대로 쓴다’는 의식에서 바뀌어, ‘말하듯이 적는다’는 의식 아래 창출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언문일치체의 ‘언’이 ‘구어’ 일반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을 통해서 작가 고유의 어투를 띤 ‘구어’로 한정될 때, 비로소 근대소설의 문체로서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²²⁾라고 말한 바 있다.

다니자키를 포함한 일본의 작가들이 수행하였던 언문일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현실과 주체 사이에 개입하는 역사적이고 사회적 문맥의 소거에 기반한 언문일치의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해한다면, 『문장강화』는 그런 맥락을 애초에 배제하거나 억압하면서, 스스로 중립적인 영토 속에 글쓰기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균질적인 언어공간을 창출하는 사회적 제도, 즉 학교 교과과정이나 법률의 체계 등에 깊숙이 개입한 제국 일본의 언어를 부인하는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글쓰기의 전략이다. 이해령이 지적한 것처럼, 이 전략은 제국으로부터 민족을 ‘분절’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것은 제국의 지방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식민지 조선의 글쓰기 문제를 언문일치라는 환상으로 대체하는 전략이면서, 또한 제국과 식민지의 위계화된 공간 속에 표준어와 방언이라는 전도된 위계를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1933년에 경성제국대학의 교수가 된 토키에다 모토키는 조선에서의 ‘국어’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22) 마에다 아이, 『일본 근대독자의 성립』, 유은경·이원희 역, 이룸, 2003, 186면.

국가적 견지에서 방언에 대한 국어의 가치는 바꿔 말해 조선어에 대한 국어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방언이나 조선어에 대한 국어의 우위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은 그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근대의 국가형태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부터 우리들은 다시 대동아공영권에서 일본어의 우위라는 것을 생각하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²³⁾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라는 대립항 앞에서 조선어와 ‘방언’은 등가의 관계로 자리매김되고 마는 것이다. 코모리 요이치는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한 이러한 언어내셔널리즘이 ‘일본정신’의 강조나 ‘근대의 초극’이라는 ‘충동원’의 슬로건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²⁴⁾ 이태준이 『문장강화』를 연재한 『문장』지를 통해서 보여준 ‘조선적인 것’에 대한 강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제국 일본과 일본어의 바깥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술과 글쓰기의 자족적인 영역 속으로 민족을 분절하는 이태준의 글쓰기는, 그것이 지닌 삶의 가능성과 그 속에 내포된 ‘정치적인 것’의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태준이 언문일치를 졸업하고 예술적 문장에 입문해야 한다고 말한 주장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그것이 또한 문예가 혹은 교양인과 민중의 위계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위계는 국민의 생산과 관련이 있다. 이태준은 언문일치를 부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언문일치는 민중의 언어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민중이라는 대상은 지식인의 발명품이라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카이 나오키는 토착적인 민중의 형상이 언제나 지식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임

23) 時枝誠記, 「朝鮮に於ける國語政策及び國語教育の將來」, 코모리 요이치, 『일본어의 근대』, 정선태 역, 소명, 2003, 318면에서 재인용.

24) 코모리 요이치, 위의 책, 318-334면.

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지식인의 민중으로부터의 소외라는 부정적인 계기를 이용하여 지식인이 국민이라는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국민에의 공감을 말하기 위해 국학과 같은 사조를 발명해 내는 것이다.²⁵⁾ 이태준의 ‘언문일치 문장’과 ‘예술문장’의 위계적인 구분은, 지식인을 민중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이것을 통해 민중을 국민이라는 형상으로 호명하기 위한 전략의 기반이 된다. 『문장강화』라는 텍스트의 맥락에서, 이태준은 민중을 교화하는 지식인의 위치에서 발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이 식민지 조선의 작가로서, 제국 일본의 발화자 앞에 서야 했던 경험은 종종 은폐된다.

1938년 11월 일본어 번역극 『춘향전』의 공연을 위해 경성을 방문한 하야시 후사오(林房雄) 등의 일본인 작가들과 경성제대 교수인 가라시마 츠요시 등 재조선 일본인, 그리고 임화, 김문집, 유진오, 이태준, 정지용, 유치진이 참석한 좌담회가 마련되었다.

이태준: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를 표현할 경우, 그 맛은 조선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지어(内地語)로 표현하면 그 내용이 내지 것으로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의 독자적인 문화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야시: 그것은 번역하면 됩니다.

「.....」

하야시: 지금부터 여러분이 작품을 내지어로 자꾸자꾸 쓰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반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태준: 그것은 일본 문화를 위해서입니까, 조선 문화를 위해서입니까?

25) 사카이 나오키, 앞의 책, 223면.

하야시: 세계문화를 위해서입니다.²⁶⁾

『문장강화』가 출간되기 전에 행해진 이 좌담회에서 이태준은 일본의 문학자 하야시 후사오에게 조선어의 장래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대목은 이태준이 조선어와 조선적인 문화를 얼마나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는가에 대한 뚜렷한 증거물로 인용될 만하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이미 이태준이 1930년대 후반의 상황에서 철저히 중립적인 지점에서 투명하게 존재할 수 없는 ‘조선어’의 상황에 대한 절박한 체험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태준이 애초에 「문장강화」를 연재하였던 순문에 잡지 『문장』이 <전선문학선>을 기획하여 종군기의 일부를 발췌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그 전후사정을 추적하면서, 그것이 편집자의 의도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무엇보다도 경무국의 의도에 따른 기획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박광현의 논의는 이러한 맥락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²⁷⁾ 그러므로 위에서 인용한 대답은 이태준이 조선어 글쓰기의 문제를 철저히 중립화시켜 서술하고 있는 『문장강화』의 정치학이 어떠한 맥락을 억압하고 은폐한 지점에서 성립된 것인가에 대한 기억할 만한 장면이다.

몇 년 후, 『국민문학』의 발행인 최재서는 한 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표준어와 방언의 문제를 제기했다.

최: 그것에 대해서 국학자가 심하게 화를 내면서 어려운 것이 일본어로, 그것을 없애면 일본정신은 사라지고 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투리의 문제는 언어가 사투리화

26) 「朝鮮文化の将来」, 『文學界』, 1939. 1.

27) 박광현, 「검열관 니시무라 신타로와 조선어문」, 임형택 외 편, 앞의 책, 405-406면.

하면 문화가 사투리화 된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의 문화가 식민지에 가서 언어가 사투리화 함과 더불어 대단히 퇴폐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소위 코이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화가 사투리화 하면 퇴폐한 문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본국으로 다시 역수입됩니다. 민중은 엄격하고 거북한 문화는 싫어하기 때문에 식민지식의 사투리 문화가 역수입 되는 것입니다.

「.....」

츠다: 고도국방적 일본어, 이상한 용어입니다만 고도국방국을 완성하였다면 지나사변도 어느 정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문화도 고도국방국가에 상응하는 것으로 변해 있다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국어의 문제도 고도국방국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 국어의 국내적인 정리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얼마 전까지는 이 조선에서도 대개 규슈(九州) 계통이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잔재해 있으나, 그 시대에 그런 자각이 있어 표준어가 확립되어 있었다면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²⁸⁾

‘국민문학’의 이데올로그 최재서는 만주나 남방과 같은 일본의 식민지이자 대동아공영권 내의 여러 ‘지방’에서의 ‘국어’ 교육에 대해 말하면서, 문화의 고급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방언화를 경계하고 표준어의 보급을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최재서의 방언/표준어에 대한 주장과 이태준의 방언/표준어에 대한 주장은 그것이 식민지의 언어적 상황이라는 맥락에 놓인 것이라는 점

28) 「大東亞文化圈の構想」, 『국민문학』 통권 3호, 1942, 2.

에서 다시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친일에 대한 관점에서 각기 저항과 협력의 상반되는 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 『문장강화』와 <국민문학>의 이 언어에 대한 관점들은 제국과 식민, 중심과 지방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분절’되거나 ‘소멸’된 식민지/지방 지식인의 대응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안에는 언어제국주의에 대한 식민지적 무의식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개성의 처소, 주체의 위치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복되어야 할 언문일치의 모순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은폐하는 『문장강화』의 식민지적 무의식이 스스로 도피할 처소로 삼은 장소는 개성이라는 자율적인 영역이다. 이태준이 ‘글짓기가 아니라 말짓기’라는 소박한 언문일치론을 주장하며 강조한 것은 “現代가 文化萬般에서 個性을 強烈히 要求한다”(16면)는 점이었고, 典故를 중시하는 과거의 문장에 대한 비판 또한 “얼마나 자신을, 個性을 沒却한 그릇된 文章精神인가”(10면)라는 점이었으며, 언문일치가 ‘민중의 문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새로이 인식시키려 했던 내용 또한 그것이 “個人的 文章, 즉 스타일은 아니다. 個性의 文章일 수는 없다.”(326면)는 점이었다. 『문장강화』에서 핵심적인 글쓰기의 요소를 단 한가지만 지적해야 한다면 그것은 개성적인 글을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개성이 지니고 있던 의미와 역사적 맥락은 1940대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의 발언을 통해 상보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백철은 1942년 『국민문학』에 발표한 「낯음과 새로움-전시하의 문예비평」이라는 글에서, “이 개성의 문제는 실은 지금 작가들이 새로

은 출발을 하게 될 때 즉시 문제로 나타나며, 또한 우리 문인협회의 좌담석상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근대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태반의 생활 관념을 포기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근대적인 개인주의적 생활영향으로 우리들은 오랫동안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생활, 영리주의(營利主義), 향락·퇴폐적인 생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보다 훨씬 엄숙하고 고귀한 생활체로서의 민족이나 국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국민의 임무도 다하지 않았다. 특히 다른 국가와 국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나라의 국체(國體)와 신민(臣民)의 길을 등한히 해왔다고 한다면, 일본 국민이 대정익찬(大政翼贊)과 신도(臣道) 실천의 본도(本道)로 되돌아가야 할 때 우선 그 개인주의적인 생활을 청산·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대단한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근대적인 것은 무엇이나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요소는 버리되 쓸모있는 것을 보존하는 작업이야말로 정당하다는 뜻이며,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개성의 문제를 제출하였던 것이다.²⁹⁾

백철의 논의는 근대적 개성의 문제를 탈각해야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 전시하에 있는 식민지 조선의 문화적 과제라는 것이다. 시국에 복무하기 위해서 근대적인 개인주의와 개성의 문제를 철저히 폐기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은 『국민문학』 창간호에 실린 최재서의 글에

29) 백철, 「남음과 새로움-전시하의 문예시평」, 『국민문학』, 1942. 1.

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상황판단이다.

그런데 만주사변(滿洲事變), 지나사변(支那事變), 제2차 구주대전(大戰)이라고 하는 일련의 지진으로 작가의 창작정신에 큰 균열(龜裂)이 생긴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좋은 그렇지 않은 개인의식에 의하여 움직여온 것이 근대문학이다. 개성의 선양으로부터 그 실추로, 또한 개성의 고민으로부터 그 해탈(解脫)로, 아무튼 개성을 추구하고 천착하다가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이 현대문학이다. 거기에 이르러 완전히 변한 것은 생활조건이다. 창작정신에 분열과 혼란이 생긴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어디에서 창작정신의 지주(支柱)를 찾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의 국민의식에서 찾을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다. 그것은 국가의 요청이거니와 또한 깊이 따져보면 오늘의 세계가 놓여 있는 불가피한 정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전체주의적 국가이든 민주주의적 국가이든 가릴 것 없이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식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자유선택의 범위 밖에 속하는 것이며, 거기에 국민의식이 이제부터 창작정신의 통일원리가 되어야 하는 필연성도 있는 것이다.³⁰⁾

백철과 최재서의 발언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태준이 『문장강화』를 통해 주장한 개성의 가치에 대한 옹호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국민문학의 이데올로그들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940년대를 전후한 시점이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 개성의 문제

30) 최재서, 「국민문학의 요건」, 『국민문학』, 1941. 11. 창간호.

를 태연하게 제출하거나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전체주의와 공동체로 귀속하기 위해서 개체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 ‘국민문학’의 논리라면, 귀속해야 할 공동체의 문제를 특정하지 않고도 개체성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문장강화』의 논리이다.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인 개인을 주체로서 호명하는 것이라는 잘 알려진 이데올로기론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문장강화』의 개성이 언문일치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호명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언문일치에 대한 제국 일본의 작가들의 비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것의 이데올로기는 중립적인 지점을 상정함으로써 역사적이고 개인적인 문맥을 소거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1940년대의 조선의 지식인이 서 있는 자리가, 제국 일본의 언어편제나 국민의식이라는 ‘정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라는 점이다. 백철이나 최재서의 선택과 이태준의 선택이 달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을 그 때문이다. 지배자의 언어가 강제되어 있는 민족에게 “지배자의 ‘언어’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배의 정당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³¹⁾ 『문장강화』가 중립적인, 혹은 탈역사적인 지점에서 어떤 개성을 지닌 주체를 요청하고 있다면, 그 주체는 고정되고 정태적인 기능주의적 전체성 속에서 그 위치가 미리 정해져 있는 주어이다. 개인이 고정된 결과 개인은 달라지지지도 지연되지도 달아나지도 않고 인간이라는 사이에 있는 존재를 통해 전체성에 의해 미리 정해진 주체위치에 갇히게 된다.³²⁾ 그 주체위치는 식민지의 모국어라는 극히 불안정한 장소 속에 겨우 존재하는, 심미적 글쓰기라는 매우 모호한 지점이다.

31) 가스야 게이스케, 「언어 헤게모니-‘자발적 동의’를 조직하는 권력」, 미우라 노부타카·가스야 게이스케 편, 이연숙 외 역,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369-389면 참조.

32) 사카이 나오키, 『번역과 주체』, 후지이 다케시 역, 이산, 2005, 204면.

5. 식민지의 언어편제와 글쓰기

본고는 이태준의 『문장강화』에 나타난 근대적 언문일치에 대한 신념을 살펴보면, 그것이 상정한 글쓰기론의 주요 요점이 한자어에 대한 제한과 표준어 사용에 대한 강한 요구임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제국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조선을 분절하여, 제국의 지방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식민지 조선의 글쓰기 문제를 언문일치라는 환상으로 대체하는 전략이다. 또한 이태준의 ‘언문일치 문장’과 ‘예술문장’의 위계적인 구분은, 지식인과 민중이라는 위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민중을 국민이라는 형상으로 호명하는 지위를 지식인과 작가들에게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략이 정치의 미학화로 이어지는 장소에 개성이라는 작가의 처소가 마련된다. 그 개성은 일본의 식민주의라는 전체성의 불안한 위협 속에서 결코 자율적이지 못한 정체를 지니고 있다.

『문장강화』에서 이태준이 공들여 부여한 민족어의 지위와 표상들, 그리고 그것이 제기하는 수사학은 제국에 저항하는 주체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받아 왔다. 그러나 민족어를 세련시키려는 노력이 어쩔 수 없이 자리하게 된 식민지적 무의식의 장소를 간과하는 것은 식민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요구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이태준의 문장론과 문학론에서 발견되는 일본 식민주의의 영향을 단순한 영향관계로 파악하거나 식민주의의 일방적인 전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식민주의를 정당하게 넘어서려 할 관점을 제시하지 못한다. 민족의 수사학과 식민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갖는 친연성에 대한 이해는 그 이데올로기가 기반하고 있는 근대성이라는 시기 자체에 의문을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언문일치와 표준어, 미적 주체와 개성의 강조라는 근대성의 이념 안에 자리잡은 무의

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미쓰이 다카시는 1920년대 이후의 조선의 어문운동(규범화운동)이 조선어 철자법규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으로 대표되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정책 동향에 크게 규정되어 있었음을 논한 바 있다.³³⁾ 조선어의 규범화가 갖는 근대적 성격이 식민지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얽혀 성립하고 있다면 이태준이 『문장강화』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조선어의 세련 또한 그러하다. 그것은 제국주의 일본의 언어편제 속에서 하나의 주체 위치를 기획하고자 했던 문학가 이태준의 고투의 결과이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주체 위치는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외부로부터 고립된 순정한 조선어를 상정하는 이태준의 글쓰기와 현영섭의 조선어해소론, 그리고 김사량 등의 이중언어 글쓰기가 혼재하는 것이 식민지 후반의 언어적 편제이다. 이를 단순하게 ‘지배-저항’의 도식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언어론들이 저마다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해 투쟁하였던 장으로 이해할 때 식민지의 언어상황에 대한 이해의 장은 열릴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 작동한 언어의 헤게모니는 조선어에 대한 일본어의 지배적 정당성의 자명한 주장만이 아니라 조선어 각각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들 간의 사회적 구축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일본어와 조선어가 절합(articulation)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면, 선형적으로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언어에 내재하는 사회적 권력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문장강화』의 글쓰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식민지의 언어편제 속에서 구축된 것이다.

33) 미쓰이 다카시, 「식민지시기 조선에서의 언어운동 전개와 그 성격」, 임형택 외 편, 앞의 책, 367-368면.

[ABSTRACT]

The Colonial Language organization in Lee Tae-jun's
『Munjang Ganghwa(文章講話, 1940)』

Huh, Byung-shik(Dongguk University)

Lee Tae-jun's 『Munjang Ganghwa(文章講話, 1940)』 develops his writing theory on the supposition that convictions of modern identity of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言文一致) are basically requisite to writing. Its main point focuses on strong urge for restricted use of Chinese character words and proactive use of Korean standard language. It is natural and inevitable that phonocentrism granting national traditional authorities to the origin of phonetics prior to letter(character) accompanies negative minds about Chinese characters. Such emphases on using Korean standard language may pose a question: How hypotheses on genuine 'Korean language' as representative standard language could make it possible to converge on unified national community beyond hybrid diversity.

In the conclusion of 『Munjang Ganghwa』, Lee Tae-jun supposes that Munjang(文章, general writing) as representative modern identity of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 contrasts with Yesulmunjang(藝術文章, artistic writing such as poem and essay), asserting that it is necessary for literary artists to avoid identity of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 It doesn't only suppose any

possibility of residing outside Japanese empire and language, but also segments a nation into self-sufficient spheres of art and writing. In this context, Lee's argument for necessity to give introduction to artistic writings beyond conventional identity of written and spoken language means esthetic transformation of politics.

Emphasis on individuality as delineated in 『Munjang Ganghwa』 presupposes a neutral position through conventional ideology called 'identity of written and spoken language', resulting in elimination of historical and personal contexts. The principal requested by 『Munjang Ganghwa』 from such neutral and transhistorical standpoints is the subject whose position is predetermined in stereotyped and static totality based on functionalism. Such static predetermination results in individuals bounded by their subject position predestined under the totality. The subject position is very ambiguous position represented by esthetic writing, which exists even in extremely unstable place of colonial native language.

Key words: Lee Tae-jun, 『Munjang Ganghwa(文章講話)』, identity of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言文一致), esthetic transformation of politics, esthetic writing, Language organization

[참고문헌]

□ 기본자료

백철, 「납음과 새로움-전시하의 문예시평」, 『국민문학』, 1942, 1.

이태준, 『문장강화』, 박문서관, 1940.

최재서, 「국민문학의 요건」, 『국민문학』, 1941, 11. 창간호.

「大東亞文化圏の構想」, 『國民文學』, 통권 3호, 1942, 2.

「朝鮮文化の将来」 『文學界』, 1939, 1.

谷崎潤一郎, 「文章讀本」, 『谷崎潤一郎全集』, 中央公論社, 1983.

□ 단행본

미우라 노부타카·가스야 게이스케 편, 이연숙 외 역,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김철, 「깡생의 도 혹은 미로」, 『민족문학사연구』 28, 2005.

릴라 간디, 이영옥 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마에다 아이, 『일본 근대독자의 성립』, 유은경·이원희 역, 이룸, 2003.

미쓰이 다키시, 「식민지시기 조선에서의 언어운동 전개와 그 성격」, 임형택 외 편,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박광현, 「검열관 니시무라 신타로와 조선어문」, 임형택 외 편,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박진숙, 「이태준 문학연구: 텍스트와 내포독자를 중심으로」, 서울대대학원, 2003.

사에구사 도시카쓰, 「해방 후의 이태준」, 『사에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 심원섭 역, 베틀북, 2000.

사카이 나오키, 『번역과 주체』, 후지이 다케시 역, 이산, 2005.

서영채, 「한글세대의 문학 언어의 특징」, 임형택 외 편,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스즈키 토미, 『이야기된 자기』, 한일문학연구회 편, 생각의 나무, 2004.

코모리 요이치, 『일본어의 근대』, 정선태 역, 소명, 2003.

이연숙, 『국어라는 사상』, 고영진·임경화 역, 소명, 2006.

□ 논문 및 기타 자료

이혜령, 「이태준 『문장강화』의 해방 전/후」, 『한국소설과 골상학적 타자들』, 소명, 2007, 398-420면.

和田とも美, 「李泰俊の文學の底流にあるもの」, 朝鮮學報, 1996, 1, 121-157면.

황호덕, 「國語와 朝鮮語 사이, 內鮮語의 존재론-일제말의 언어정치학, 현영섭과 김사량의 경우」, 『대동문화연구』제58집, 2007, 135-182면.

허병식, 「이태준과 교양의 형성」,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227-250면

접수일: 2020.12. 05 총평일: 2020.12. 28 게재확정일: 2020.12. 30